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자가 책을 읽으며 머릿속에 구조화한 이미지가 정교하게 구성된 정도를 응집성이라고 한다. 응집성이 높은 독자일수록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응집성 기준은 독자가 책을 읽을 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목표하는 이해의 수준으로, 독자가 책을 이해하는 데 들이는 노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응집성 기준이 높은 독자는 전략적인 독서를 하여 이미지를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구성하려고 한다. 반면 응집성 기준이 낮은 독자는 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당한 수준의 이해에 만족하고 책을 훑어 읽거나 읽기를 멈추게 된다.

응집성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황 요인, 텍스트 요인, 독자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독서 환경, 읽기 목적이나 목표 설정의 자율성은 상황 요인, 책에 담긴 글의 구조, 난이도는 텍스트 요인, 독자의 읽기 능력과 배경지식은 독자 요인으로 구분된다. 가령 같은 책을 읽더라도 책의 소재를 익숙하게 느끼는 독자는 그 내용을 쉽다고 인식하여 낮은 응집성 기준이 형성될 수 있지만, 책의 소재가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독자는 더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요인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며, 특히 상황 요인과 텍스트 요인은 각 요인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독자의 인식, 즉 독자 요인을 매개로 하여 응집성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응집성 기준이 높은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에 비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응집성 기준은 가변적이므로 한 명의 독자라도 책에 따라 응집성 기준이 다르게 형성되거나, 하나의 책을 읽는 과정 중에도 응집성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즉, 독자가 읽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응집성 기준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의 읽기 능력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바탕으로 각 시점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접하고 있는 책에 따라 ㉠응집성 기준을 적절히 조절하며 책을 읽어야 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배경지식과 달리 독자의 읽기 능력은 독자 요인에 속한다.
- ② 응집성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 ③ 익숙한 소재의 책을 읽을 때 독자는 책을 더 유심히 읽으려고 하게 된다.
- ④ 독자의 응집성 기준이 높을수록 책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 ⑤ 여러 독자가 같은 책을 읽는다면 동일한 수준의 응집성 기준이 형성될 것이다.

2.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독서 활동을 기록한 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 ~ ㉢를 분석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최근 『뇌의 활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책에 담긴 내용을 과제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 책을 꼼꼼하게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했다. 특히 뇌파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과제를 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더 자세하게 읽었다. 반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것으로 보여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나중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친구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책을 읽었다고 했다. 이후 뇌의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한 다른 책을 읽어 보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 훑어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 ① ㉠: 독자가 더 정교한 이미지를 구성하도록 만든 상황 요인에 해당한다.
- ② ㉡: 독자가 책을 읽으면서 일정한 응집성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 독자 요인에 해당한다.
- ③ ㉢: 독자의 인식을 매개로 하여 응집성 기준에 영향을 미친 텍스트 요인에 해당한다.
- ④ ㉣: 독자가 능동적으로 전략적인 독서를 하지 못하게 만든 상황 요인에 해당한다.
- ⑤ ㉤: 독자가 책의 내용을 적당히 이해하고 읽기를 그치게 만든 텍스트 요인에 해당한다.

3. ㉦의 관점에서 <보기>의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거 선비들은 모든 글자의 뜻을 생각하며 책을 빈틈없이 읽었다고 한다. 내가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대충 읽고 넘어갔던 것이 생각나 앞으로는 항상 책을 꼼꼼하게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① 독자가 의식적으로 응집성 기준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항상 높은 응집성 기준을 유지하려는 것은 독서에 방해가 됩니다.
- ② 때로는 책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낮은 응집성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독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하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올바른 독서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 ④ 적절한 응집성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전략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⑤ 과거 선비들처럼 모든 글자의 의미를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는 응집성 기준을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격 동일성 문제는 다른 맥락, 다른 신체, 다른 시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별자가 어떻게 하나의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나’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눈을 뜨더라도 우리는 ‘나’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나’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격 동일성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①로크는 기억을 통해 인격 동일성을 설명하는 기억 이론을 제안하였다. 기억 이론에 따르면,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기억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지니고 있다는 기억의 연속성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 로크에 따르면 ‘나’의 신체가 갑자기 달라지더라도 ‘나’가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한다.

반면 ②칸트에 따르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기억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인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칸트는 로크와 달리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기억이 연속적이면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그것은 경험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는 선험적 사실인 인격 동일성이 이미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인격 동일성은 언제나 전제된 사실이므로 이 둘은 동일한 인격이고, 동일한 인격을 가진 두 개별자이기에 기억의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편 파팿은 인격 동일성 문제는 ‘나’가 반드시 하나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④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억이나 신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만을 받아 들였을 때, 과거의 ‘나’와 동일한 인격으로서 현재의 ‘나’가 반드시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나’가 가지고 있던 기억과 신체를 기반으로 ‘나’의 복제 인간 여러 명을 ⑥만들었다고 하자. 이 복제 인간들은 모두 ‘나’의 기억을 단절 없이 가진다는 점에서 모두 ‘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도 과거의 ‘나’와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파팿은 이들이 과거의 ‘나’와 기억을 공유하는 등 심리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른 인격이라고 볼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따라서 어떤 인격이 과거의 인격과 동일한 인격이냐는 질문이 오직 하나의 확정적인 답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나’의 신체를 복제하는 기술이나, ‘나’의 기억과 믿음, 생각 등 심리적인 상태를 흉내 낸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해 생산한 개별자가 ‘나’와 서로 유사한 상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인격을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상태로 환원해 인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관점은 언젠가 ‘나’와 유사한 상태를 가진 개별자가 ‘나’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데이비슨은 어떤 개별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와 구분되지 않아도, 그 개별자가 ‘나’와 동일한 인격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늑 인간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어느 날 늑 근처에 서 있던 ‘나’와 늑에 번개가

내리쳐 ‘나’는 소멸하고 우연히 늑에서 ‘나’의 물질적 복제물인 늑 인간이 ③생겨났다고 하자. 늑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복제물이 아니라 ‘나’의 기억과 습관까지도 지닌 것처럼 보인다. 그는 ‘나’의 친구들을 만나 그들을 ④알아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며 아무도 ‘나’와 늑 인간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와 늑 인간은 동일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데이비슨에 따르면 늑 인간은 ‘나’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듯 보여도 ‘나’의 세계를 ‘나’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늑 인간은 ‘나’가 이전에 경험한 어떤 것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늑 인간은 ‘나’의 친구를 알아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의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늑 인간은 그가 ‘나’의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사용했던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실제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늑 인간은 해당 단어의 의미가 형성된 언어 공동체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으므로 그 삶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해당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늑 인간은 ‘나’와 유사한 심리적 상태를 가졌음에도 ‘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와 다른 존재가 된다.

데이비슨의 늑 인간 사고 실험은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인격 동일성에 대한 이해가 경험적인 관찰만으로는 ⑤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격은 단순한 물리적, 심리적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통찰은 한 인간이 다른 개별자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한 이론이 가진 한계를 밝히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주어진 이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바를 모색하고 있다.
- ② (가)는 하나의 문제를 각자의 관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나)는 하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례가 전통적인 이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됨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학계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특정한 학자가 제시한 이론이 가지는 장점을 밝히고 있다.
- ⑤ (가)와 (나)에 등장하는 학자들은 모두 전통적인 이론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는 ‘나’가 신체의 변화 속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유지된다는 직관을 가진다.
- ② 파팿은 과거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라고 볼 미래의 ‘나’가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③ 데이비슨은 늑 인간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나’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유사한 존재라고 전제했다.
- ④ 데이비슨은 늑 인간이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점은 부정하지만 ‘나’와 기억의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 ⑤ 데이비슨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생활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억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은 이를 비판함으로써 인격 동일성 문제가 어떤 관점에 기반을 두는지 검토하고 있다.
 - ② ㉠은 ‘나’가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함으로써, ㉡은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함을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은 기억 이론을 제안함으로써, ㉡은 해당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을 탐구함으로써 기억과 인격 동일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④ ㉠은 인격 동일성이 성립하는 경험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은 성립하지 않을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서로의 주장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신체의 변화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임으로써, ㉡은 기억의 변화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가진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7.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의 상황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상황 1] ‘나’의 인격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복제한 상황

- 로크: 컴퓨터에 복제된 인격이 ‘나’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격은 ‘나’라고 할 수 있겠군.
- 데이비스: 컴퓨터에 복제된 인격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군. ①

[상황 2] ‘나’는 죽고 늙 인간이 ‘나’의 집에 사는 상황

- 칸트: 늙 인간이 ‘나’의 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가 ‘나’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겠군. ②
- 파팿: 늙 인간이 가진 심리적 상태가 ‘나’와 유사하다면 ‘나’와 동일하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군. ③

[상황 3] ‘나’가 기억을 유지하며 ‘나’의 친구와 신체가 바뀐 상황

- 데이비스: 친구의 신체에 들어있을지라도 ‘나’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되겠군. ④
- 파팿: ‘나’의 친구의 몸에 ‘나’가 있으므로, 그 외 사람의 몸에는 ‘나’가 있을 수는 없겠군. ⑤

8.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어떤 대상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를 수적 동일성과 질적 동일성이라는 두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한다. 수적 동일성이란 어떤 대상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여 하나로 세어짐을 의미한다. 수적 동일성은 대상이 변화하더라도 유지된다. 예를 들어 어떤 양초가 녹아서 그 형태, 색, 표면이 약간 변화하더라도 변화한 양초는 불을 붙이기 전의 양초와 수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질적 동일성은 둘 이상의 대상이 가진 속성이나 성질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하나의 대상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과도 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지만, 외견상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속성과 성질이 동일한 두 볼펜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있다고 하자. 이 두 볼펜은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고 수적으로도 동일하지 않지만, 질적으로 동일하다.

- ① 로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나’와 성인이 된 ‘나’는 신체의 변화에도 어떤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수적 동일성을 지니겠군.
- ② 칸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간대의 대상이 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대상이 수적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도출되지 않겠군.
- ③ 파팿에 따르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유사성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질적 동일성을 지니는지 알 수 없다고 하겠군.
- ④ 로크와 데이비스에 따르면, ‘나’의 복제물인 늙 인간은 ‘나’와 질적 동일성을 지니지만 수적 동일성을 지니지는 않겠군.
- ⑤ 칸트와 데이비스에 따르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수적 동일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기억과 같은 유사한 심리적 상태 외의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겠군.

9.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작(始作)되었다고
- ② ㉡: 제작(製作)했다고
- ③ ㉢: 발생(發生)했다고
- ④ ㉣: 대면(對面)하고
- ⑤ ㉤: 성립(成立)하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 거래에서는 환율 변동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재화의 거래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는 돈의 실제 가치가 예상과 달라지는 환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위험은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제 주체들은 환위험을 막기 위한 전략인 환위험 헤지를 실행한다.

환위험 헤지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선도 계약이 있다. 선도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당시에 합의한 환율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통화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통화를 교환하고자 하거나, 원하는 금액의 통화를 교환하려는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울 때는 선도 계약의 체결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통화 선물 계약을 이용하면 선도 계약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통화 선물 계약도 선도 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해진 환율로 만기가 되는 시점에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통화 선물은 표준화된 조건에 따라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약 상대방을 찾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때 거래소는 통화 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당사자에게 이행 보증금인 증거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증거금은 계약 당사자의 계약을 불이행을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선도 계약이나 통화 선물 계약은 모두 미래의 환율을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확정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환율이 이후에 유리하게 변동하더라도 계약상 정해진 환율로 거래해야 하므로, 오히려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통화 옵션이다. 통화 옵션은 미리 정해 놓은 환율로 만기에 다른 통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통화 옵션을 매입할 때, 매입자는 반환되지 않는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매도인에게 선지급한다. 이후 매입자는 미래 환율의 변동 양상에 따라, 옵션 계약 환율과 변동된 환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비교하여 통화 옵션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1달러를 1,3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통화 옵션을 매입했다고 하자. 만기 환율이 1,300원보다 높으면 매입자는 옵션을 행사해 1,300원에 달러를 매수함으로써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만기 환율이 1,300원보다 낮으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당시의 시장 환율로 달러를 매수하면 된다. 옵션을 행사했을 때 매입자의 순손익은 옵션 행사로 얻은 환차익에서 선지급한 프리미엄을 뺀 값으로 결정되며,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매입자의 손실은 선지급한 프리미엄으로 한정된다.

이처럼 다양한 환위험 헤지를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는, 상품을 수출입할 때와 달리 미래의 현금 흐름이 불확정적이고 투자의 성과가 환율 변동과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환위험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예상되는 수익의 일부에 대해 통화 선물 계약을 실행하는 부분 헤지를 하거나, 여러 다른 수단과 함께 조합하여, 일정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만기 환율을 미리 고정해 두는 통화 선물 계약 대신 짧은 기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롤링 헤지’도 활용된다. 예컨대 1년간 수익에 대해 3개월 단위로 롤링 헤지를 한다면, 연간 수익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눈 뒤 각 분기 수익을 해당 분기에 체결한 롤링 헤지 계약 환율로 환산해 합산하여 연간 환산 수익을 구한다. 이 방식은 환율 수준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일정한 조정 기능을 가지지만, 손익의 규모는 환율 변동의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

10.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 거래에서, 거래 대금을 지불할 때와 수령할 때 모두 환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타국 기업과의 거래를 피하게 만들 수 있다.
- ③ 환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이전받는 금액의 가치가 사전에 합의한 수준보다 커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④ 통화 옵션을 행사한 결과 환율이 유리하게 변동하여 순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하나의 환위험 헤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할 때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11.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미래 환율의 변동 양상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더 큰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② ㉠과 ㉡은 모두 국제 시장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축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쉽게 체결할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직접 적절한 계약 상대방을 찾아야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을 방지하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거래소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가 미래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 ⑤ ㉡은 ㉠과 달리 계약 당사자가 미래에 교환하려고 하는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12. 다음은 ㉢의 상황에서 환위험 헤지 수단을 이용한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한국인 투자자 갑은 미국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는 예상되는 수익에 1년 만기 통화 선물 계약과 3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롤링 헤지를 이용해 환위험을 피하고자 하였다. 갑은 1년 간 투자 후 800달러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

㉢ 1년 간 분기별 롤링 헤지 계약 환율

(단위: 원/달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00	1,200	1,000	1,200

㉣ 1년 만기 통화 선물 계약 환율: 1,300원/달러

㉤ 1년 후 투자 수익 환산 시점의 최종 환율: 1,200원/달러

갑은 수익에 대해 환위험 헤지 방법에 관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했다.

- 1) 통화 선물 계약
- 2) 통화 선물 계약과 롤링 헤지 50%씩 혼합형
- *혼합형은 통화 선물 계약과 롤링 헤지 계약 환율을 각각 이용한다.
- 3) 롤링 헤지
- 4) 헤지하지 않음

이때 갑의 실제 환산 수익이 가장 높은 환헤지 방법은 (A)이며, 두 번째로 높은 환헤지 방법은 (B)이며, 가장 낮은 방법은 (C)이다.

	A	B	C
①	통화 선물 계약	헤지하지 않음	롤링 헤지
②	통화 선물 계약	혼합형	롤링 헤지
③	혼합형	통화 선물 계약	헤지하지 않음
④	통화 선물 계약	혼합형	헤지하지 않음
⑤	혼합형	롤링 헤지	헤지하지 않음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한국 국적의 기업 A와 B는 통화 옵션을 체결함으로써 환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A사는 미국의 기업으로부터 3개월 후 옥수수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사는 미국의 기업에 3개월 후 반도체를 수출하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① 3개월 후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하락이 예상될 때, A사는 예상 환율보다 낮은 환율에 달러를 매수할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 ② 3개월 후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상승이 예상될 때, B사는 예상 환율보다 높은 환율에 달러를 매도할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 ③ A사가 현재 환율에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였다면 3개월 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였을 때, A사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 ④ B사가 현재 환율에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였다면 3개월 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프리미엄이 무시할 수준이라면, B사는 3개월 후의 환율을 이용해 통화를 교환하려 할 것이다.
- ⑤ 3개월 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B사가 체결한 옵션의 프리미엄이 큰 경우에는 옵션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손실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체 내부의 목표한 지점으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입자의 크기를 적당하고 균일하게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미세 입자 제조 기술 중 하나인 결정화 기술은 혼합물 용액에서 용해도 변화를 유발하여 원하는 용질을 결정으로 석출하는 기술이다.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인 용해도 이상으로 용질이 녹아 있는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한다. 결정화 기술에서는 용질이 용매에 최대로 녹아 있는 포화 용액에 반응매를 첨가하여 용질의 용해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기체 상태로 만든다. 이에 따라 포화 상태였던 용액은 과포화 상태로 변하고, 불안정한 과포화 상태의 용액은 용질을 고체 입자로 석출하며 안정한 포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결정화 과정에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 등의 초임계 유체가 사용될 수 있다.

초임계 유체는 물질의 온도와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유체로, 이상 기체에 가까운 희박한 밀도 상태에서 액체 용매에 가까운 고밀도 상태까지 연속적으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독특한 성질을 띤다.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의 성능은 핵 생성 단계와 결정 성장 단계와 관련이 있다. 핵 생성 단계에서 석출된 입자는 결정의 중심을 이루는 결정핵이 되어 입자의 수를 늘리거나, 결정 성장 단계에서는 핵에 붙어 입자의 크기를 키운다. 따라서 원하는 크기의 입자를 얻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영향력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가령 핵 생성 단계가 열세이고, 결정 성장 단계가 우세하다면 입자의 수가 감소하는 대신 입자 마다의 크기는 증가할 것이다.

입자 제조 공정은 초임계 유체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RESS 공정과 SAS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RESS 공정에서는 미세 입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용질을 높은 밀도의 초임계 유체에 용해시키고, 용액을 좁은 노즐을 통과하게 해 급속히 팽창시킨다. 이

과정에서 초임계 유체는 기체 상태에 가까워지고, 그 결과 용질이 용해력을 잃고 빠르게 석출된다. RESS 공정은 간단한 과정으로 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용질 자체의 용해도가 낮은 경우, 적은 양의 입자를 만들 때에도 많은 양의 초임계 유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SAS 공정은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는 RESS 공정과 달리 용질을 적절한 용매에 녹인 후 초임계 유체를 반응매로 사용한다. 반응매는 용질은 녹이지 않고 용매에는 용해되는 물질로, 용액에 첨가되어 용질의 용해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SAS 공정의 하나인 ASES 공정은 초임계 유체가 흐르고 있는 고압의 결정화 기기 내부에 노즐을 통해 목표 용질이 섞여 있는 용액을 주입하여 미세 입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때 용액을 작은 덩어리인 액적으로 나누어 주입하여 용매와 초임계 유체가 맞닿은 면적을 넓힘으로써 물질 전달 속도를 높이게 된다.

RESS 공정과 ASES 공정에서 핵 생성 단계와 결정 성장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다르다. RESS 공정에서는 용질이 과포화된 정도가 높을수록 결정 성장보다 핵 생성이 우세하게 일어나 입자의 수는 늘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반면, 과포화된 정도가 낮을 때에는 그 반대의 과정이 일어난다. 한편 ASES 공정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 물질 전달 속도가 느려져 핵 생성이 우세하게 일어나지만, 용질의 농도가 커지면 물질 전달 속도가 빨라져 결정 성장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각 공정에서는 두 단계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크기의 미세 입자를 얻을 수 있다.

14. 윗글을 대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세 입자 제조 기술 중 결정화 기술의 기본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②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 두 가지를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핵 생성 단계와 결정 성장 단계를 설명하고, 두 단계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초임계 이산화 탄소는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체이다.
- ⑤ 용질이 용해도만큼 녹아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한다.

1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화 용액에 반응매를 첨가하여 미세 입자를 제조하는 공정을 RESS 공정이라 한다.
- ② 불안정한 과포화 상태의 용액에서 석출된 입자는 결정 성장 단계에서 결정의 일부가 되어 입자의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
- ③ SAS 공정은 용매에는 녹지 않지만 용질에는 녹는 초임계 유체를 사용한다.
- ④ RESS 공정에서 초임계 이산화 탄소의 석출은 액체 용매에 가까운 밀도 상태일 때 용이하다.
- ⑤ ASES 공정에서 액적이 많아질수록 결정 성장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1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임계 유체는 연속적인 상태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 ② 용질의 용해도가 높으면 같은 양의 용질을 녹이는 데에 적은 양의 용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③ 초임계 유체가 반응매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④ RESS 공정은 용액을 팽창시키면 용질이 용해력을 잃고 석출되는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 ⑤ 용질의 과포화된 정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다.

17.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천식은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흡입형 스테로이드(ICS)를 통해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지만, ICS의 크기를 1~3 μ m 정도로 조절해야 폐의 내부까지 약물이 도달할 수 있다. A 연구소는 RESS 공정을 사용하여, 기존의 0.1 μ m ICS를 2 μ m ICS로 만들었다. 한편 B 연구소는 ASES 공정을 사용하여, 기존의 5 μ m ICS를 2 μ m ICS로 만들었다.

- ① A 연구소의 미세 입자 제조 기술은 이전보다 과포화 정도가 낮아지고, 결정 성장 단계가 우세하게 일어나겠군.
- ② B 연구소의 미세 입자 제조 기술은 이전보다 물질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핵 생성 단계가 우세하게 일어나겠군.
- ③ B 연구소에서 ASES 공정 사용 이후, 용매에 용질을 추가로 투입했다면 ICS는 2 μ m보다 크게 만들어지겠군.
- ④ A 연구소의 미세 입자 제조 기술은 B 연구소의 기술과 달리 ICS를 녹이는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고, 기존보다 많은 수의 결정이 형성되겠군.
- ⑤ B 연구소의 미세 입자 제조 기술에서 사용되는 노즐은 A 연구소의 기술에서 사용되는 노즐과 그 역할이 다르고, 주입된 용액 또한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을로 접어들면서 윤 직원 영감과 대북이가 노상 걱정을 하게 된 것이 금년 추습니다. 농작이 대체로 풍년은 풍년이지만, 전라도에 수해가 약간 있었고, 윤 직원 영감네 논도 얼마간 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것은 겨우 반타작이나 되겠고, 어느 것은 사태와 물에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서, 벼 한 톨 추수는커녕 그 논을 다시 파 일구는 데 되레 손해가 더 크게 생겼습니다.

수확량이 줄은 것은 지난 백중 무렵에 대북이가 실지로 내려가서 보고 사정을 듣고 온 엄연한 사실이니까, 윤 직원 영감도 [A] 소작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말을 엄살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윤 직원 영감이 수해 사실은 인정해도 내밀 배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논으로 말하면 죄다 소작료를 선불로 받으니까 상관이 없다. 소작 계약에도 써어 있지만, 흥년이 들어서 추수가 덜 났다거나 또 아주 없다거나 하더라도, 선불인 만큼 소작인은 정한 대로 소작료를 물어야 경우가 옳지 않느냐.’

만약 흥년이라고 소작료를 감해 주기로 든다면, 그러면 그 반대로 풍년이 들어서 벼가 월등 많이 나는 해는 소작료를 처음 정한 값보다 더 받아도 된단 말이냐? 그때에 가셔도 소작료를 더 물라면

물 테냐? 물론 싫다고 할 것이다. 거 보이라. 그러니까 흥년 핑계를 대고서 **소작료를 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공연한 떼다**.’

[B] 소작 계약에서 정한 소작료를 요구하는 것은 경위가 빠질 게 없으니, 매우 지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 직원 영감의 말대로 하면,

‘세상이 다 개명을 해서 좋기는 좋아도, 그놈 개명이 지나치니까는 되레 나쁘다. 무언고 하니, 그 소위 농지령이야, 소작 조정령이야 하는, **천하에 긴장은 법이 마련**되어 가지고서, 소작인 놈들이 건방지게 굴게 하기, 그래 흥년이 들든지 하면 소작료를 감해 내라 어쩌라 하기, 소작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기, 소작을 떼어 옳기지 못하게 하기…….’

이래서 모두가 **성가지고 뇌풀스려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땅 가지고 내 맘대로 소작료를 받고, 내 맘대로 소작을 옳기고 하는데, 어쩌서 도며 군이며 경찰이 간섭을 하느냐?’

이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고, 해서 불평도 불평이려니와 윤 직원 영감한테는 커다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던 것입니다.

아무튼 싹수가, 줄잡아야 천 석은 두옹둥 뜨게 되었고(물론 배짱대로야 버티어는 보겠지만 **도나 군이나 경찰의 권유며 간섭에는 항거**를 해서는 못쓰니까 말입니다) 그러자니 생으로 배가 아파 요새 며칠 대북이와 영감이 맞대고 앉으면 예전만치 추수를 못하는 금년 상황이 걱정이요, 또 공론이 어떻게 하면 묘한 피를 써서 소작인들을 꼼짝 못 하게 하여 옹근 소작료를 받을까 하는 그 공론입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윤 주사가 윤 직원 영감을 찾아와 일본으로 유학 간 중학이 사상 문제로 경시청에 체포되었다는 전보를 전한다.

윤 직원 영감은 **손주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C]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전보가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아들 윤 주사가 옆에서 한 마디 거듭니다.

“그러머넌 참말이구나! 그러머넌 참말이여, 으응!”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 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텡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 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 사상을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패에 들어?**”

[D]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일본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러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평평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어, 으응?”

— 땅— 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팔팔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E] 아니라 모여 선 가족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 채만식, 「태평천하」 -

18. [윤 직원 영감]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 직원 영감은 소작인들이 흉년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했다고 여긴다.
- ② 윤 직원 영감은 계약을 통해 선불로 정한 소작료는 흉년이 들어도 삭감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③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증언을 통해 손자가 사회주의 사상을 추종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격분한다.
- ④ 윤 직원 영감은 과거와 달리 화적패와 부패한 수령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바람직하게 평가하며 만족감을 표출한다.
- ⑤ 윤 직원 영감은 대복과 함께 수해로 인해 줄어든 벼 수확량을 걱정하며 소작인들의 요구를 거부할 방법을 강구한다.

19.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대복이가’와 ‘윤 직원 영감이’를 보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 ‘매우 지당한 주장입니다’를 보면, 서술자가 인물의 의견을 타당 하게 여기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 ‘진시황’을 언급한 것을 보면,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회고적으로 서술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D]: ‘물을 친 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인물이 위치한 공간의 정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 ‘모여 선 가족들’과 같이 여러 인물을 명시한 것을 보면, 중심인물 의 행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20.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이 다른 인물의 사회적 위신을 의식한다는 단서로,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된다.
- ② 중심인물이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원인으로, 다른 인물이 가진 삶의 자세에 대한 반감을 유발한다.
- ④ 중심인물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밝혀낸 사건의 진상으로,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켜 위기감을 형성한다.
- ③ 중심인물이 부조리한 시대적 현실을 환기하게 되는 계기로, 자신의 일관적이지 못한 삶의 태도를 성찰하게 한다.
- ⑤ 중심인물이 주변의 인간관계를 재고하게 되는 전환점으로, 기존에 가진 의문이 확신으로 변하면서 긴장감을 완화한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태평천하」에는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를 긍정 하는 봉건적 가치관과 일제 강점기 현실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세계관을 지닌 지주 계층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은 봉건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소작인들의 형편은 외면한 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아울러 시대착오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가족 구성원을 매개로 식민 권력에 편승하려 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불의한 세력과 영합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인물의 그릇된 소망이 좌절되는 결말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은 당대 지주 계층을 비판적 시선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 ① ‘소작료를 감해 달라’는 요구를 ‘공연한 때’로 바라보는 데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소작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인물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천하에 긴장은 법이 마련’되어 ‘정가시고 뇌꿀스러 볼 수가 없’다는 데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여기는 인물의 봉건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도나 군이나 경찰의 권유며 간섭’에 ‘항거’하지 않는 데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불의한 세력과 영합하려 하는 인물의 기회 주의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손주 종학’이 ‘경찰서장’이 되지 않고 ‘부랑당패에 들’었다는 데에서, 가족 구성원을 매개로 식민 권력에 편승하려 한 인물의 그릇된 소망이 좌절되는 결말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거리거리 일본 순사’가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어 ‘고마운 세상’이 라고 여기는 데에서, 일제 강점기 현실을 용인하는 인물의 시대착오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 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장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 윤동주, 「눈 오는 지도」 -

(나)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
잠시라도 잊었을 때
채찍 아래서 우리를 부르는 뜨거운 소리를 듣는다

이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
우리가 가기를 멈췄을 때
혹은 가기를 포기했을 때
칼자옥을 딛고서 오는 그이의
아픈 발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불러야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
대낮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
형제의 찬 손일지라도
언젠가는 피가 돌아
고향의 논둑을 더듬는 다순* 낮이 될지라도
오늘 조인 목을 뽑아
우리는 그에게로 가야만 한다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부르다가 쓰러져 그의 돌이 되기 위해
가다가 멈춰 서서 그의 장승이 되기 위해

- 이시영, 「이름」 -

*다순: 따스한.

(다)

무릇 **참 것을 참 것이라** 하여 물(物)을 이름 짓는 것은 거짓된 것을 참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짓는 것만큼 취미가 깊지 못하다. 천지의 사이에 가득 찬 물건들이 만 가지를 헤아릴 수 없으나 모두 각자의 자성(自性)이 있다. 이를테면 산은 산만의 자성이 있고 물은 물만의 자성이 있으니, 만약 산을 지목하여 산이라 하고 물을 지목하여 물이라 한다면, 우뚝 높고 크게 솟은 것은 어느 누가 그것이 산이라는 것을 모르며, 줄줄 내리쬐는 것은 어느 누가 그것이 물인 줄을 모르랴. 자성에 따라 그대로 대상을 명명하는 방식은 다른 것 같아도 같은 점이 있고, 같은 것 같아도 다른 점이 있어 **일정이 없는 표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이조 판서 성 공(成公)이 ㉠돌로 창고(蒼古)한 것을 어마하게 쌓아서 별당 곁에 우뚝 높고 솟은 것이, 그 웅장한 품이 산과 같아서 층층 난 봉우리와 으스스한 골짜기는 의적이 숭산이나 화산을 바라보는 듯하다. 그래서 이름을 석가산(石假山)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소로친(蘇老泉)은 ‘높다란 저 남산’이라 일렀고, 자사(子思)는 ‘커다란 돌무더기’라고 했다. 실상은 돌뿐이지만 높이 쌓여 마치 산처럼 되니 산이라고도, 돌이라고도 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성 공이 이름을 붙이고자 할진대, 바로 진짜 산(眞山)이라 해도 무방하거늘 굳이 가짜 산(假山)이라 이름을 붙였다. 성 공이 별당에 만든 것은 우뚝 높고 솟아 산과 다름 없으니 진짜 산이라고 이름 붙일 만하다. 과연 이 말이 옳은 것인가?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산이란 실상 하늘 닿게 높은 것인데, 뜰의 사이에 있으니 진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산이라 이른 것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산은 흙이 있는 법인데 돌밖에 없으니 가산이라 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은 실상 산의 뼈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순전히 돌로만 되었으니, 어찌 살이 없이 뼈만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가산이라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성 공은 학문이 해박하여 그 물리(物理)의 서로 다른 점에 있어서는 너무도 자세히 구별하는 터인데, 어찌 산은 본시 큰 것이니 작은 것은 산이라 이룰 수 없고, 산은 본시 흙이 있는 법이니 돌만 가지고는 산이라 이룰 수 없고, 무릇 **산처럼 혈기가 있는 물건치고 살과 뼈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으니, 이 모든 것은 더구나 성 공이 세밀히 연구하고 명확히 분석한 바이다. 따라서 물리적 측면만으로 성 공이 가산이라고 지은 이름을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의 학자들이 명칭과 실상의 과도한 구별에 현혹되어, 이를 테면 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산이다.” 하면 모두들 산으로 여기고, 돌이지 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한 사람이, “이것은 바로 돌이다.” 하면, 모두들 돌로 여기고 돌이 산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는 각각 이름만 알고 실상을 모르는 것, 그 실상만 고집하고 산이라 불릴 수 있는 그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과 돌의 서로 다른 자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이름을 지은 패착이다. 석가산은 돌이면서 산이고, 산이면서 돌이기에 결국 성 공의 뜻은 돌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돌과 산이 다른 것 같아도 같은 점과 같은 것 같아도 다른 점을 모두 밝혀 **명칭과 실상을 조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니, **가산(假山)**으로 이름을 지어 진산(眞山)이 아니라는 그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다.

- 김수온, 「석가산기」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소재를 활용하여 부정적 세태를 비판한다.
 - ②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낸다.
 - ③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④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여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⑤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낸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윤동주의 시에 이따금 등장하는 ‘순이’는 시인의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눈 오는 지도」에서 화자는 ‘순이’와 이별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돌아갈 수 없는 유년 시절에 대한 여러 정서적 반응을 ‘눈’에 투영하여 나타낸다. 나아가 화자는 홀려가 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유년의 기억을 토대로 자아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자아를 정립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낸다.

- ① ‘순이’가 떠나는 ‘아침’에 ‘말 못 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린다고 표현한 것에서, 홀려가 버린 유년 시절에 대한 화자의 상실감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방 안’마저도 ‘눈이 내리는 것’ 같이 ‘하얗’다는 것에서, 유년 시절에 경험한 이별의 상황을 회상함으로써 유발된 화자의 서글픔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순이’가 ‘가는 곳’을 몰라서 ‘일러둘 말’을 적은 ‘편지’를 보내지 못한다는 것에서, 돌아갈 수 없는 유년 시절에 대한 화자의 단절감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조그만 발자국’을 덮은 ‘눈이 녹’은 후에 그 ‘자리마다 꽃이 피리’라는 것에서, 유년 시절의 기억을 토대로 성숙한 자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는 것에서, 자아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화자의 마음속에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우리를 부르는 뜨거운 소리’는 화자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뒤따르는 응답으로 제시된다.
- ② [B]에서 ‘아픈 발소리를 듣’게 될 것에 대한 예감은 화자가 ‘가기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③ [C]에서 ‘그에게로 가야만 한다’는 화자의 염원은 ‘부르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멈춰 서’는 난관에 대한 극복 의지로 이어진다.
- ④ [A]에서 ‘누군가를 불러야’ 하고 [B]에서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는 화자의 당위적 태도는, [C]에서 ‘그의 돌’과 ‘장승’이 되고자 하는 목적 의식으로 귀결된다.
- ⑤ [C]에서 ‘형제의 찬 손’은 [A]에서 ‘채찍’과 [B]에서 ‘칼자옥’에 시달리는 대상을 더욱 억압함으로써 대상의 비극적 처지를 심화한다.

25. ㉠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가 비록 돌을 쌓은 것이지만 우뚝 높고 솟아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는 듯하여 산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진짜 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하다고 여길 것이다.
- ② 글쓴이는 성 공이 ㉠를 ‘석가산’이라고 명명한 뜻이 산과 돌의 서로 다른 자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이름을 짓는 것을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여길 것이다.
- ③ 글쓴이는 성 공이 ㉠를 ‘가짜 산’이라고 명명한 뜻이 크기가 작거나 돌만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 ④ 글쓴이는 소로천이 ㉠를 ‘산’으로만 인식한 것에 대해 이름만 알고 실상을 모르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 ⑤ 글쓴이는 자사가 ㉠를 ‘돌’로만 인식한 것에 대해 돌이 산이 되는 원리를 간과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나)와 (다)는 ‘이름’을 중심으로, 각각 대상을 호명하고 명명하는 행위가 지닌 의미를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우리’로 표상되는 민족이 험난한 상황에 맞서 동포의 이름을 끊임없이 호명해야 하는 의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통을 겪고 있는 동포에게 도달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한편, (다)의 글쓴이는 대상에 내재된 본질만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성 공’의 별당에 놓인 대상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실상의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편향된 인식을 지적한다. 그리고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 ① (나)에서 ‘대낮의 숨통을 조이’는 상황에서 ‘조인 목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민족이 동포를 위해 험난한 상황에 맞서야 함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② (다)에서 ‘참 것을 참 것이라’ 할 때 ‘일정이 없는 묘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대상에 내재된 본질만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글쓴이가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③ (다)에서 ‘세상의 학자들이 명칭과 실상의 과도한 구별에 현혹’되는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이름과 실상의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편향된 인식을 제시하는 것이군.
- ④ (나)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포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에서 성 공이 ‘명칭과 실상을 조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은 피상적 이해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⑤ (나)에서 ‘누구인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은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동포의 이름을 호명해야 하는 의무를, (다)에서 ‘산처럼 혈기가 있는 물건 치고 살과 뼈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성 공이 별당에 놓인 대상을 ‘가산’으로 명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숙향이 어쩔 수 없이 장 승상 댁에서 쫓겨나 목메어 흐느껴 울면서 정처 없이 가는데, 앞에 큰물이 흐르고 있었다. 숙향이 물가에 다다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제가 전생에 하늘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행을 겪게 하나йка? 저는 다섯 살에 부모를 잃었으며, 의지할 곳 없어 낮에는 길거리를 방황하고 밤에는 수풀과 덩불에 의지하여 살아왔나이다.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천만다행으로 장 승상 부인을 만나 십 년을 의탁했는데, 물건을 훔쳤다는 억울한 악명을 얻어 쫓겨나게 되었으니,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오리까? 부모님을 다시 못 보고 저를 누구도 찾아오는 이 없이 물에 빠져 죽사오니, 푸른 하늘과 일월성신은 밝게 살피시어 장 승상 댁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숙향이 한참을 통곡하며 우니, 길 가는 행인들이 길을 가다 말고 모두 눈물을 뿌렸으며, 하늘과 땅도 수심에 싸인 듯하고, 온갖 초목과 짐승들도 다 슬퍼하는 듯하더라.

이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새들도 잠들기 위해 수풀로 찾아들었으며,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은 사람의 수심을 더욱 돋우었다. 숙향이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옥 같은 고운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한 손에는 비단 수건을 쥐고 한 손으로는 치마를 부여잡고 물에 뛰어드니, 산천초목이 동시에

‘아차!’ 하고 놀라는 듯하고, 물결이 뒤집혀 끓는 듯하였다. 길 가는 행인들이 놀라 속향을 구하려고 했지만, 미처 구하지 못했다.

속향이 물에 빠지자마자 사방에서 오색구름이 일더니 새앙머리를 한 선녀들이 연엽주(蓮葉舟)를 타고 바빠 오며 말했다.

“용녀(龍女)는 낭자를 뵈시고 어서 배에 오르라.”

말이 끝나니 문득 물가에 떠다니는 검은 널판 같은 것이 고운 여자로 변하여 속향을 안고 배에 올랐다. 속향은 어찌 된 영문인 줄 모르고 있는데, 선녀들이 속향에게 두 번 절하며 말했다.

“낭자께서는 어찌 천금같이 귀한 몸을 가뵈이 버리려 하십니까?

우리는 월궁항아의 명을 받들어 낭자를 구하러 오던 중에 은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났는데, 그분이 ‘술을 내놓으라’며 붙잡고 놓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제때 오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용녀가 낭자를 구했나이다.”

또 용녀에게 사례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때맞춰 와서 낭자를 구하셨나이까?”

하니 용녀 또한 절을 하며 대답했다.

“옛날 사해(四海)의 용왕이 모두 수정궁(水晶宮)에 모여 잔치를 벌일 때 제가 사랑하는 시녀가 실수로 유리병을 깬나이다. 행여 시녀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 제가 그 일을 감추고 아뢰지 않았더니, 용왕이 이를 알고는 화가 나서 저를 바다로 쫓아냈나이다. 그때 제가 바닷가에 나왔다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속향의 부친이 목숨을 구하여 다시 용궁으로 왔으나 아직까지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어제 용왕이 옥경(玉京)에 올라가 조회를 마치고 나올 때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시길, ‘월궁의 소아가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인 남양 땅 김 상서의 딸로 태어나게 하여 귀양을 보냈더니, 포진물에 빠져 죽게 생겼구나’ 하시더랍니다. 이에 용왕이 즉시 내려와 용궁의 관원에게 명하시길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인간 세상의 물에 속향이 빠지거든 평안하게 구하거라’ 명하셨는데, 첩이 김 상서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자 자원해서 낭자를 구했나이다. 이제 선녀들께서 오셨으니, 저는 물러가나이다.”

(중략)

사향이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난데없이 흰 누비옷을 입은 중이 들어왔다. 승상이 놀라서 묻기를,

“그대는 어디에 살며, 무슨 일로 오셨나이까?”

하니 그 중이 읊(揖)하고 부탁했다.

“저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내려온 천승(天僧)이옵니다. 명에 따라 장 승상 님의 옥석(玉石)을 가려 **억울한 낭자의 누명을 벗기**고 악녀를 처단코자 하니, 집 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여기에 세우소서.”

이에 장 승상이 말하기를,

“내 집에는 특별히 옥석을 가릴 일이 없으니, 스님께서는 공연히 오셨나이다.”

하니 그 중이 이르기를,

“옥석을 가릴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속향과 사향의 일을 자세히 아시나이까?”

했다. 이때 승상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사향이 두려워하며 달려 나와 말했다.

“승상께서 이 집에 빌어먹는 속향을 어여뵈 여기시어 부인의 침실에 두고 친자식같이 사랑하셨으나, 속향의 행실이 꽤썸하여 승상이 임금께 하사받으신 옥장도와 부인에게 예물로 보내신

금비녀를 도둑질했다가 들켰소. 저도 이것이 부끄러웠던지 십 년이나 은혜를 베푼 부인에게 하직 인사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 길 가는 총각과 서로 희롱하며 가더이다. 부인의 명으로 내가 뒤쫓아가 여러 번 불러도 속향이 오지 않았음을 아뢰었거늘, 너는 어떤 미친 중놈인데 속향의 뇌물을 받아먹고 감히 재상가의 내실에 들어와 어지러운 말로 변명을 하느냐? 승상께서는 사내종들로 하여금 저 중을 끌어내어 돌수박 같은 대가리를 돌바닥에 문질러 보내게 하소서.”

[B]

그 중이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그간 승상 님의 살림을 도맡으면서 온갖 것을 다 훔쳐 냈는데, 속향이 맡은 뒤로는 네 마음대로 못 했느니라. 그러다가 지난 삼월 십삼일 영춘당에서 잔치할 때 속향이 아닌 네가 옥장도와 금비녀를 훔쳐다가 속향의 화장 그릇에 넣어 두고, 도리어 속향이 훔친 것처럼 부인에게 모함하지 않았느냐? 또 승상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 속향을 구박하고 내쫓아, 부인이 속향을 찾고자 불러오라고 할 때도 옆집에서 놀다가 돌아와서는 네가 거짓으로 아뢰었노라. 네 **악행**을 승상과 부인은 간교하게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어찌 모르느냐?”

[C]

말을 마친 중이 조그만 수레를 공중에 던지고 그 위에 올라섰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듯 천지가 진동했으며, 점점 날이 어두워지면서 큰 소나기가 바가지로 퍼붓듯이 쏟아지고,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거렸다. 승상 부부와 노비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문득 **공중에서 항아리 같은 불덩이가** 날아와 곧바로 사향에게 **천벌을 내리어** 머리를 깨뜨렸다. 천승의 말을 듣고나서 이를 본 승상 부부와 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 작자 미상, 「속향전」 -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의 발화를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위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28.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월궁항아’는 ‘선녀들’을 보내 ‘속향’을 도우면서, ‘속향’이 천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처벌 방법을 두고 ‘옥황상제’와 대립한다.
- ② ‘속향의 부친’은 ‘용녀’의 목숨을 살림으로써, ‘용녀’가 위기에 처한 ‘속향’을 구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③ ‘선녀들’은 검은 널판의 형상으로 물가에 떠다니던 ‘용녀’를 배에 태우고 위기에 처한 ‘속향’을 구하게 시킨다.
- ④ ‘장 승상’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천승’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가 한 부탁에 거절의 의사를 드러낸다.
- ⑤ ‘용녀’는 ‘시녀’를 보호하려다 ‘용왕’에 의해 쫓겨난 바다에서 물에 빠진 속향을 발견한다.

29.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숙향이 토로한 ‘억울한 악명’은 [B]에서 숙향이 ‘도둑질했다가 들켰’다고 사향이 비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② [B]에서 사향이 천승을 ‘미친 중놈’이라 칭하며 ‘어지러운 말’을 한다고 힐난하는 것은 [C]에서 ‘잔치할 때’ 있었던 일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C]에서 천승이 질책한 ‘숙향을 구박하고 내쫓’은 사향의 행위는 [A]에서 숙향이 ‘의지할 곳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 ④ [B]에서 사향이 거론한 ‘숙향의 행실’에 관해 [C]에서 진상이 밝혀짐으로써 [A]에서 숙향이 ‘푸른 하늘과 일월성신’에게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다.
 - ⑤ [B]에서 사향이 ‘여러 번 불러도 숙향이 오지 않았’다고 아뢰는 것은 [C]의 ‘숙향을 찾고자’ 했던 부인의 시도를 저지하여 [A]에서 숙향에게 ‘누구도 찾아오는 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숙향전」은 천상계와 지상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천상계의 섭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 주인공의 삶을 그리고 있다. 작중 서사는 천상계에서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이때 주인공의 고난 극복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져 서사적 흥미를 더한다. 또한 악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달한다.

- ① 숙향이 ‘하늘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행을 겪게 하’냐고 한탄하는 모습은, 천상계의 섭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주인공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용녀가 ‘낭자를 구’하고 천승이 ‘억울한 낭자의 누명을 벗기’려 하는 상황은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용왕이 용궁의 관원에게 ‘인간 세상의 물에 숙향이 빠지거든 평안하게 구하’라고 명하는 모습은, 천상계와 지상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천승이 ‘수레를 공중에 던지고 그 위에 올라’서는 모습과 ‘공중에서 향아리 같은 불덩이가 날아’오는 장면은, 조력자가 지닌 초월적 능력을 통해 서사적 흥미를 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천승이 사향의 ‘악행’에 대해 ‘천벌을 내리’는 모습은, 천승이 자신의 계획대로 악인을 처벌함으로써 독자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한의 강동행*에 가을바람 만난들
조각배 아니 타면 하늘 맑고 바다 넓어도 어떤 흥이 절로 나며
삼공과도 아니 바꿀 제일강산에 부평초 같은 어부 생애를
조각배 아니면 어디 붙어 다닐까
이런 일 보건대 배 만든 제도야 오묘한 듯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 날썬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껴 타고 음풍농월에도 흥이 전혀 없는가
옛날 배 안에는 술상과 음식이 낭자하더니
오늘 배 안에는 큰 칼, 긴 창뿐이로다
똑같은 배지만 가진 것이 다르니
그 속의 근심과 즐거움 서로 같지 못하구나
때때로 머리 들어 임금 계신 북극성을 바라보며
근심 어린 눈물을 하늘 끝에 흘리네
동방의 문물이 중국의 문물에 뒤질까마는
국운이 불행하여 패전하고 왜적에게 치욕을 당하니
백 가지 중 하나도 씻지 못했거늘
이 몸이 변변찮아 신하의 몸이지만
궁달의 길이 달라 옆에서 못 모시고 늙은들
우국단심이야 어느 때에 잊겠는가

[A]

[B]

(중략)

짐승 같은 왜구가 조금이라도 두려울까
날랜 배에 달려들어 선봉에 선다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적을 헤치리라
칠종칠금*을 우린들 못할쏘나
섬나라 오랑개야 얼른 항복하려무나
항복하면 안 죽이니 너를 굳이 섬멸하라
우리 임금 **성덕(聖德)이 함께 살기 원하노라**
태평천하에 요순 군민(堯舜君民) 되어서
일월 광화(光華)는 아침마다 거둬들거늘
전선(戰船) 타던 우리 몸도 **어선(漁船)에서 노래하고**
가을 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서
태평성대에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C]

- 박인로, 「선상탄」 -

*장한의 강동행: 진나라 때 장한이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의 음식이 생각나서 벼슬을 버리고 자연으로 낙향함.

*칠종칠금: 촉나라의 제갈량이 맹획을 잡아 그가 복종할 때까지 붙잡고 놓아주기를 일곱 번 반복한 일.

(나)

반(半) 밤중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 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용(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풍설 섞어 친 날에 묻노라 북쪽에서 온 사자(使者)야
소해(小海) 용안(容顔)이 얼마나 추우신고
고국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겨워 하노라 <제2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많아라

어렵게 이룬 화친(和親)을 누구를 두고 한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 이미 죽으니 수레에 태워올 이 없어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밝은 밤에 임의 시름 일정 많으려니
이역(異域) 풍상(風霜)을 겪는 학가(鶴駕)인들 잊을쏘냐
이 밖에 억만창생을 못내 분별하시나다 〈제7수〉

구렁에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임금과 나랏일 아는 것이 없으니 그 아니 좋을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줄 같아 갈 길 몰라 하노라 〈제9수〉

이것아 어리석은 것아 잡말 마라
칠실(漆室)의 비가(悲歌)를 뒤라서 슬퍼하리
어디서 탁주 한 잔 얻어 이 시름 풀까 하노라 〈제10수〉
- 이정환, 「비가(悲歌)」 -

*학가: 세자. 또는 세자가 타던 수레.
*조구리: 조 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계절감이 나타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명시적 청자를 호명하며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32.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대상에 의존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② [B]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운수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③ [C]에서는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동시에 공존을 도모하는 자세가 드러난다.
- ④ [A]에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경시하는 태도가, [B]에서는 서로 다른 두 대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 ⑤ [B]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겪은 온갖 수모를 잊지 못하는 모습이, [C]에서는 전쟁이 종식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가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33.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 ‘만 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 것은 〈제7수〉에서 ‘이역 풍상을 겪는 학가’의 시련을 예견하는 화자의 경험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제2수〉의 ‘고국의 못 죽는 고신’은 〈제6수〉에서 어렵게 ‘화친’을 이룬 ‘무신’을 흠모하면서 ‘조구리’와 같은 충신이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제2수〉의 ‘얼마나 추우신고’와 〈제7수〉의 ‘시름 일정 많으려니’라는 진술에는 근심에 싸여 있는 임금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④ 〈제8수〉의 ‘구렁에 낫는 풀’은 태평한 존재로 화자와 대비된다면, 〈제9수〉의 ‘검줄’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암울한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8수〉에서 ‘그 아니 좋을쏘냐’라고 여기고, 〈제10수〉에서 ‘이 시름 풀까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해상을 방비하는 수군의 입장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왜적의 침략을 경계하는 상황을, (나)는 고향으로 낙향한 은자의 입장에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세자들을 염려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중앙 정계에서 물러나 임금의 곁을 떠난 처지임에도, 신하로서 국가와 군주를 염려하는 우국충정의 태도를 공통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두 화자가 주목하는 임금의 태도나 스스로 지향하는 삶의 방향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궁달의 길이 달라 옆에서 못 모시’고, (나)에서 ‘하늘 밖에 떨어져’ ‘어느 것이 서울’인지 묻는 것은 중앙 정계에서 물러나 임금의 곁을 떠나있는 신하의 처지를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근심 어린 눈물을 하늘 끝에 흘리’고, (나)에서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는 것에서 신하로서 국가와 군주를 염려하는 우국충정의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짐승 같은 왜구가 조금이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은 왜적의 침략을 경계하는, (나)에서 ‘꿈’에 ‘학가 선용을 친히 뵈 듯’하다는 것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세자들을 염려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성덕이 함께 살기 원’한다는 것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들을 포섭하려는, (나)에서 ‘임’이 ‘이 밖에 억만창생을 못내 분별하시’는 것은 병자호란 이후에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임금의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어선에서 노래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해상을 방비하는 수군으로서 평화를 소망하는, (나)의 ‘칠실의 비가’를 뒤라서 슬퍼’하나는 것은 낙향한 은자로서 국가에 대한 우환을 떨쳐내려는 화자의 지향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